

한국농어촌공사 경주시사, 경주 보문호서 '호숫길 쓰담 쓰담' 실시

☞ 황기환 기자 | ☎ 승인 2023.10.24 | 📄 17면



한국농어촌공사 경주시사 직원들이 23일 경주 보문호에서 플로깅 행사를 펼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 경주시사는 23일 보문관광단지 내 보문호에서 '행복한 농어촌, 함께 가꾸는 호숫길 쓰담 쓰담' 행사를 실시했다.

이날 행사는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추진하는 플로깅 캠페인 일환으로 이뤄졌으며, '쓰담'은 쓰레기 주워담기의 줄임말이다.

경주시사 직원들은 지역주민들과 함께 저수지 주변의 일회용품 등 쓰레기를 수거하며 아름다운 호숫길 조성을 위해 활동을 펼쳤다.

이관우 지사장은 "앞으로도 저수지 수질보호와 농업용수 관리는 물론 지속가능한 경영을 실천하고 지역사회와 따뜻한 동행을 해나갈 것"이라며 "이번 보문저수지 플로깅 활동에 함께 참여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국농어촌공사 경주시사, 보문호 아름다운 호숫길 조성

☞ 박형기기자 | ☎ 승인 2023.10.23

‘행복한 농어촌, 함께 가꾸는 호숫길 쓰담 쓰담’ 행사 실시
깨끗한 관광단지 조성, 저수지 수질보호와 농업용수 관리



한국농어촌공사 경주시사 직원들이 보문관광단지 내 보문호에서 ‘행복한 농어촌, 함께 가꾸는 호숫길 쓰담 쓰담’ 행사를 시행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한국농어촌공사 경주시사 제공

경주 최고 관광단지가 조성된 보문단지의 보문호는 농업용수이다. 이에 한국농어촌 공사는 깨끗한 관광단지 조성과 함께 농업용수 수질보호를 위해 특별한 행사를 추진했다.

23일 오전 한국농어촌공사 경주시사는 보문관광단지 내 보문호에서 ‘행복한 농어촌, 함께 가꾸는 호숫길 쓰담 쓰담’ 행사를 시행했다.

이번 행사는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추진하는 플로깅 캠페인으로 ‘쓰담’은 쓰레기 주워 담기의 줄임말이다.

경주시사 직원들은 지역주민들과 함께 저수지 주변의 일회용품 등 쓰레기를 수거하며 아름다운 호숫길 조성을 위해 활동을 펼쳤다.

이관우 지사장은 "저수지 수질보호와 농업용수 관리는 물론 지속가능한 경영을 실천하고 지역사회와 따뜻한 동행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형기기자